



살기좋은 마을 주민들의 손으로

헝가동마을 주민들이 도로변 마을진입로 경관조성을 위한 도리지 식재 작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2003년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진안군의 '마을가꾸기' 사업이 올해에도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진안군은 지금까지 자체예산 총 27억여원을 투입하여 매년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을 통한 마을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성과에 따른 예산집행의 모범이 되고 있다.

마을가꾸기 사업에는 1단계인 그린빌리지 사업을 통해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소규모 마을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2단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다.

그린빌리지·참살기좋은마을

으뜸마을 등 3단계 걸쳐 진행

군, 올해 2억5800만원 지원

보조금 지급율 50% 상회

타 사업과 달라 일관된 행정 필요

또한 이렇게 선정된 참살기좋은마을 중 5개 내외의 마을을 선정해 국·도비 지원사업이 가능한 예비마을지구로 육성하는 3단계 으뜸마을사업이 있다.

군은 올해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에 7개 마을, 총사업비 1억1,900만원,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에 6개 마을, 총사업비 2억5,8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향로 군수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보조금 지급율이 50%를 상회

했으며, 주민들의 만족감도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사업추진성과를 보이고 있다.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진안읍 가마리 상가막 마을의 김금석 이장은 "오랜 기간 꾸준히 사업을 해오고 있는 진안군의 노력 덕분에 이제는 주민들이 군의 사업을 신뢰하고, 그 축적된 경험을 서로 공유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진안군이 10년 넘게 시행해오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다른 많은 단발성 사업들과는 달리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고,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진안군의 마을가꾸기 사업이 어디까지 진화해 나갈지 한번 지켜볼 일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연구동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벽화그리기 초안집기 작업.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원강정마을 영지버섯 증균점종 작업.



2017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행복한 도전이 있는
축제의 장”



일시 : 2017. 4. 9(일) 08:00

장소 : 군산월명종합경기장

국제공인대회 : Full, Half, 10km, 5km
International Certified Marathon Race
42.195km, 21.0975km, 10km, 5km

참가신청기간 : 2017. 1. 15 ~ 3. 20(65일간)
마라톤사무국 : 063)465-7731, 02)418-7881



www.smgmara.com
www.smgmara.org